

전남대 '수료 유보제'

수강신청 등 기회 ... 졸업 못한 수료생 구제

전국 최초 시행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전남대는 지난 2000년부터 전공 외에 외국어와 컴퓨터 분야에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학과별, 학부별 졸업 필수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졸업이 가능토록 제도를 바꿨다.

이로 인해 졸업 여건을 갖추지 못한 수료생들이 매년 2006년 413명, 2007년 506명, 2008년 606명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의국어대의 '졸업생 업그레이드 프로그램'과 성균관대 '리틀레이닝 교육' 등 졸업생의 취업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은 다양하지만 수료생들의 졸업을 돕기 위한 제도는 전남대의 수료 유보제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전남대는 수료 대상자들이 2학기까지 추가로 수강신청과 교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료 유보제를

가/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남자 교사 늘었다

초등교원 합격자 여성비율 70%대로 떨어져

중등도 남자 합격자 증가 '女超' 완화될 듯

올해 광주시내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교사 중 여성비율이 7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선 초등학교의 심각한 '여초(女超)' 현상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009 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211명 중 여성이 72%(152명)를 차지했다.

광주의 공립 초등학교 임용시험에 합격한 여성 비율은 2005년 91.2%, 2006년 83%, 2007년 92.7%, 2008년

84.5%로 수년간 고공행진을 이어왔다.

이 여파로 지난해 광주지역 국·공립 초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은 전체의 80.8%(3천893명)에 달했다.

광주의 중등 교원도 최근 3~4년간 20%대에 머물던 남자 합격자 비율이 올해는 36.9%(130명 중 48명)로, 지난해 23.6% 보다 13.3% 포인트 높아졌다.

앞으로도 남성의 교직 진출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 교육청은 올해부터 바뀐 시험

방식과 경제난에 따른 안정적인 직장 선호 추세가 겹치면서 남성의 교직 진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초등 교원 임용시 기존 1차(객관식, 논술시험), 2차(면접, 수업실기)시험으로 선발하던 방식을, 올해부터 영어면접과 영어수업시연이 포함된 3차 시험까지 포함시켰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남성들의 교직 진출 증가는 일선 초등학교 교사의 심각한 남녀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보탬이 될 것"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천주교 광주대교구 부제 서품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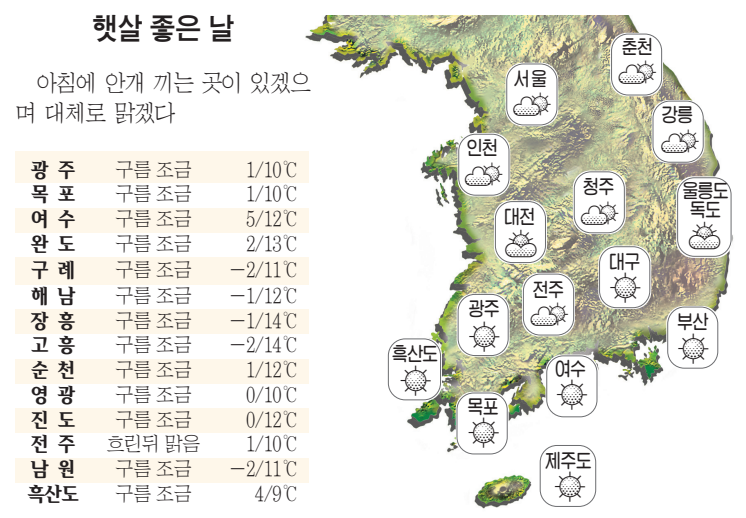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4일 오후 2시 광주 북구 임동 주교좌성당에서 사제단이 참석한 가운데 최창무 대주교의 주례로 부제 서품식을 거행했다. 이날 서품식에서는 최시영(A.요한)씨 등 9명이 부제 서품을 받았다. 한편 이준(대건안드레아)씨 등 10명에 대한 사제 서품식은 5일 오전 열린다.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4일 오후 2시 광주 북구 임동 주교좌성당에서 사제단이 참석한 가운데 최창무 대주교의 주례로 부제 서품식을 거행했다. 이날 서품식에서는 최시영(A.요한)씨 등 9명이 부제 서품을 받았다. 한편 이준(대건안드레아)씨 등 10명에 대한 사제 서품식은 5일 오전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29분 해질 18시 05분 달돋이 13시 02분 달질 03시 22분



지역	구름	조금	1/10°C
광주	구름 조금	1/10°C	
목포	구름 조금	1/10°C	
여수	구름 조금	5/12°C	
완도	구름 조금	2/13°C	
구례	구름 조금	-2/11°C	
해남	구름 조금	-1/12°C	
장흥	구름 조금	-1/14°C	
고흥	구름 조금	-2/14°C	
순천	구름 조금	1/12°C	
영광	구름 조금	0/10°C	
진도	구름 조금	0/12°C	
전주	흐린뒤 맑음	1/10°C	
남원	구름 조금	-2/11°C	
옥산도	구름 조금	4/9°C	

비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0.5m	목포 10:04	02:26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여수 05:32	12:00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여수 17:45	23:53

광주 도심 겨울안개 잦은 이유는?

서해서 유입된 수증기 내륙공기와 만나 응결

겨울철 광주 도심에 때마침 짙은 안개가 자주 끼는 이유는 뭘까? 원인은 겨울철담지 않게 습한 날씨와 큰 일교차가 맞물린 결과다.

지난 3일 밤부터 4일 아침까지 광주를 비롯한 내륙지방에는 겨울철에 보기 힘든 짙은 안개(가시거리 1km 이하)와 박무(薄霧; 가시거리 1km 이상) 현상이 나타나 항공기가 결항되고 차량이 북북이 운행을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지난달 31일에도 광주공항의 가시거리가 0.1km에 불과해 항공기 결항과 지연이 속출했다.

기상청은 "최근의 겨울 안개는 서쪽에서 밀려온 습한 공기와 대기층의 낮은 기온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조선대학교 류찬수 교수(과학교육학부 지구과학과)는 "겨울철 안개는 최근 낮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8~9도 가량 높은 가운데 낮 동안 서해상에서 이동한 수증기와 내륙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공기 중에 머물다가 기온이 떨어지는 밤과 아침에 응결돼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개는 포화수증기량(공기 1m당 최대 수증기량)이 많은 낮 동안에는 발생하지 않다가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는 포화수증기량이 줄어 수증기가 응결되는 이른바 수증기와 복사냉각의 합작품이라는 얘기가. 류 교수는 "도심 안개는 바람을 타고 이동한 수증기가 차가운 겨울밤에 응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정율성기념사업회, 남구청장 고소

"관련 증거 조작했다" ... 남구청도 맞고소키로

중국 혁명음악의 대부 정율성 선생의 생가 문제로 광주시 남구와 갈등을 빚어온 정율성기념사업회가 '정율성 선생에 관련된 증거를 조작했다'며 남구청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남구도 지난달 29일 '정율성로(路)' 개통식 행사장에서 빛어진 물리적 충돌과 관련, 기념사업회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기념사업회의 행위를 방지하면 행사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이를 막기 위해 양립동 주민들과 논의해 법적 조치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율성기념사업회는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에 대해 사문서 위조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기념사업회는 "남구가 정율성 선

생의 가짜 친필 이력서를 만들고, '정율성 선생의 형님이 살았던 곳을 생가'라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구도 '정율성로 개통식' 행사를 30여분 동안 방해한 기념사업회 관계자 10여명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기념사업회의 행위를 방지하면 행사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이를 막기 위해 양립동 주민들과 논의해 법적 조치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52) 227-9970

침늘부리 천마

천마(天麻)는 '하늘에서 떨어져 마비가 되는 증상을 치료했다' 하여 이름 붙여진 기능성 건강식물로서, 우주군이 응접 육성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